

데스크 시각



박 성 천
문화부장·편집국 부국장

한 해의 끝자락에서 떠올려보는 단상

해마다 이맘때면 한 해를 상징하는 말들이 발표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교수들이 선정하는 '올해의 사자성어'와 옥스퍼드 영어 사전(OED)이 뽑은 '올해의 단어'가 이에 해당한다. 전자는 고전에 기록돼 후세에 전해지는 맏인 반면, 후자는 새롭게 만들어진 조어(造語)다.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변동불거(變動不居)'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으로, 전국 대학 교수 766명 가운데 260명(33.94%)이 선택했다. 변할 '변'(變), 움직일 '동'(動), 아니 '불'(不), 있을 '기'(居)의 조합은 '만물은 변화하며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뜻을 함의한다.

2025년과 격변의 소용돌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OED)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는 '분노 미끼'(rage bait)다. 어휘나 아감에서 다분히 부정적인 뉴앙스가 감지된다. 우리 사회 저변에 분노의 감정이 드리워져 있는 것처럼 유럽 사회에도 증오, 혐오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교신문은 '변동불거'가 선택된 이유에 대해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언급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다. 2025년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 역동적인 해로 기록될 만큼 극적인 사건들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연말 급작스럽게 터진 비상계엄을 비롯해 운석열의 탄핵, 석방과 재수감, 대통령 선거, 정권교체 등 일련의 일들은 소용돌이의 연속이었다.

운석열 정권은 권불십년(權不十年), 아니 권불오년(權不五年)도 못 넘기고 권불삼년(權不三年)에 막을 내렸다. '한줌도 안 되는 권력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더니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반성은커녕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언행으로 화를 부추기고 있다. 달도 차면 기우는 것이 순리인데 운석열을 위시한 계엄세력은 세상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자신들만의 망상에 빠져 있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선정한 '분노 미끼'(rage bait)는 말 그대로 분노를 유발하는 사회를 일컫는다. 강한 감정의 격동을 뜻하는 '분노'(忿怒)와 상대를 속인다는 뜻의 '미끼'(bait)가 결합된 용어다. 오늘날 분노는 디지털 사회의 어두운 이면과 연계돼 있다. 모든 것이 계수되고 수치화되는 자본주의와 사이버 세상에서 '조회수'는 생사여탈을 원 최대의 권리이나 다름없다. 수많은 스타들이 대중의 인기에 따라 명멸하는 것과 같이 콘텐츠 또한 불특정 다수와 참여하는 조회수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다.

즉, 분노는 대중을 콘텐츠로 유입시키는 가장 강력한 촉진제다. 문제는 분노가 전염, 전이된다는데 있다. 선전 선동을 극대화할 의도로 혐오, 증오를 교묘하게 조장하는 세력들에게 더 없이 좋은 미끼다. 짧은 기간 압축성장을 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대, 성별, 계층, 종교를 넘어 구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의 단어로 '분노 미끼'가 뽑혔다는 것은 그만큼 '분노나 짜증을 유발하는 콘텐츠'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분노는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사회 구성원들을 교묘하게 갈라치기 한다. 디지털의 반대인 아날로그의 가장 원초적인 특질이 인간의 감정과 감성인데, 그것마저 AI로 대변되는 알고리즘이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이 씁쓸할 뿐이다.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2025년은 변화무쌍한 한 해였다. 12월의 끝자락에 들어서면 매번 옛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말들이 떠오른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세월에 속고 살았다"는 푸념은 세상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의 통찰이 담긴 말들이다. 아마도 그 같은 표현들이 내년 이맘때도 환기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은 우리 삶의 본질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지난 시간들의 경험에서 유연한 때문이다.

'변동불거'와 '분노 미끼'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선택한 말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통의 의미가 내재돼 있다.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이다. 세상도, 인간의 감정도 움직이며 그것이 곧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다. 한때 TV 광고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라는 카피가 장안의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인간의 원초적 감정인 사랑도 움직인다면, 다른 것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내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까. 아니 내년 12월에는 어떤 사자성어와 올해의 단어가 선택될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말들이 선정됐으면 한다. 그러나 이런 희망사항마저도 '세상은 변한다'는 진리 앞에서는 무의미할 것 같다.

오픈칼럼



육 영 석
전남도 정책자문위원

1주일 남짓 기다리면 성탄절이다. 아이들은 그 나이에도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나는 표정이지만 나이가 들어도 찾는 눈은 기다려지고, 캐롤을 들으며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싶은 건 마찬가지다.

예전 같으면 11월 중순만 되어도 문방구에 크리스마스카드가 나오고 거리마다 캐롤이 흘러 나왔다. TV에서도 라디오에도 거리거리의 상점에서도 응원 캐롤이 넘쳐나니,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성탄절은 기쁘고 설레는 날이었다.

캐롤의 어원은 프랑스어 'Carole' 또는 그리스 고대 언어인 헬라어 'Choraulien'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1000여년 전 기독교인과 이방인들이 동지에 야외에서 원을 그리며 불렀던 원무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춤'이나 '칭찬과 기쁨'의 의미로 불리워졌다가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여왕 시대에 다시 유행하였다고 한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캐롤이자 찬송가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Silent Night Holy Night)'

크리스마스 캐롤

은 1818년 12월 24일 오스트리아의 오베른도르프에서 만들어졌다. 성니콜라우스 성당의 보좌신부였던 요제프 모어는 성당의 오르간이 고장 나 크리스마스이브 자정미사를 앞두고 적당한 연주곡이 없어서 고민했다. 그러다가 이웃마을에 사는 그의 친구 프란츠 그루버를 떠올려 곡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루버는 전문적인 작곡가는 아니었으나 10명이 넘는 아이들 생계를 위해 학교 교사와 교회 일을 하면서 틈틈이 반주자를 맡아 왔는데, 친구의 부탁대로 13마디의 짧은 곡을 만들었다. 모어 신부는 기타를 치면서 테너를 맡고 그루버는 베이스를 맡아 부른 그 곡은 성탄절마다 널리 전해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우는 캐롤이 되었고 성니콜라우스 성당은 두 사람을 기리기 위해 '고요한 밤 성당'이라 불린다고 한다.

이 은혜로운 캐롤은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기적을 불러 일으킨다. 당시 벨기에 이프르에서는 영국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이브에 한 독일군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자, 영국군들이 환호하며 따라 불렀고 크리스마스이브 동안 정전하기로 합의에 이른다. 서로 총을 쥐던 전장에서 촉구를 하고 기념품을 주고받으며 짙음과 우정을 나누었던 이 일화는 '메리 크리스마스'란 영화로도 제작되어 세계인들의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캐롤의 기적은 그뿐만이 아니다. 프리미어리그 프랑스가 전쟁중이던 1871년 크리스마스이브에 한 프랑스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Oh Holy Night)'을 한 소절 부르

자 건너편 독일군 진영에서 다음 소절을 부르며 화답했고, 이후 두 나라는 크리스마스시즌 동안 전쟁을 멈추었다고 한다.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저작권에 대한 부담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물론 카페, 식당 등 상가에서는 듣기 어렵게 되었다. 십여년 전 디지털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틀었던 한 백화점이 2억원 중반대의 배상을 하게 되면서 학습효과를 주었기 때문이다.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개방형 저작물 음원을 제공하는 업체와 협업으로 매장 내 음악을 들고 있지만 오래되거나 생소한 곡이 대부분이어서 고객들의 반응이 아직은 시큰둥한 편이다.

거기에 '소음·진동관리법'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은 성격스피커를 설치시 주간 65dB(데시벨), 야간에는 60dB이하의 기준을 지켜야한다. 일상적인 대화소리가 60dB, 전화벨 소리가 70dB, 지하철 소음이 80dB이나 기준치를 초과하면 기 벤민원을 내야할 수도 있으나 소상공인들이 틀고 싶어도 틀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년에 한번 뿐인 이 시즌을 '나 홀로 집에'만 보고 있을 순 없다. 거리에 캐롤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부를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들을 수도 있다. 광주 민주광장에 나가면 백화점 보다 더 큰 크리스마스트리가 반짝이고 건너편 정거장에는 구세군 종소리가 울리는 노랫말, 합박눈이라도 내린다면 '리브 액추얼리'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돌봄통합지원과는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지난해 제주항공 사고 대응에서 광주가 보여준 긴급돌봄 체계도 전국적 관심을 모은 사례 중 하나였다.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속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 민·관 협력, 현장 밀착 지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피해자와 가족을 안전하게 지원한 이 사례는 통합돌봄이 일상적 서비스를 넘어 도시의 안전망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준 상징적 사례로 꼽혀왔다. 많은 자체와 기관이 이 체계를 배우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는 점은, 광주의 선도성이 이미 현장에서 검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노력은 복지부 경영평가 우수기관, 복지부장관상 기관 표창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앞으로도 광주는 돌봄에 관해 국가적 변화를 이끄는 실험실이자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다. 통합서비스 모델의 고도화, 신 취약계층 돌봄체계 수립,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데이터 기반 돌봄 체계 도입, 위기·긴급 돌봄의 표준화 등을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이미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이다. 이러한 선제적 경험의 다양성과 합리적 결론은 전국이 참고할 실질적 모델이 될 수밖에 없기에 제도 시행 이후 광주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기꺼이 그 책임과 역할을 넓혀 나가 시민의 삶, 지역을 넘어 많은 이의 삶이 더 편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고



김 대 삼
광주시사회서비스원장

한 해의 끝에 서면 자연스럽게 '좋은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어떤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어떤 힘이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연말이 가진 이 특별한 감정은 한 개인의 차원에서만 머물고는 않는 것 같다. '광주 시민의 행복 파트너' 광주사회서비스원에 몸담아온 지난 기간 동안 과연 시민의 행복 파트너로서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다. 그 질문 앞에서 '광주다음 돌봄'을 펼치는 광주를 위해, 광주사회서비스원은 '광주답게' 돌봄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로 시민과 관계 맺어 왔다는 답을 내어놓는다.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우리 사회의 돌봄 체계를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돌봄 도시' 광주를 돌아보게 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동시에 광주사회서비스원으로선 의료와 요양의 측면에서 시민들이 '더 기깝게' 돌봄을 누릴 수 있는 연결자로서의 행복 파트너로 거듭나는 시점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社說

도서관 붕괴사고 자료 공개로 의혹 해소해야

4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공공 발주 사고라는 점에서 더 중격적이다. 광주는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와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대규모 사상자를 낸 아픈 기억이 있다. 두 곳 모두 민간 건설현장 사고였는데 이번에는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현장에서 참사가 발생해 체감 충격이 더 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은 사법기관의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공기를 맞추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다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발주처인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사고 발생 1개월 전 감리단과 시공사 측에 "부진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시공사에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해 속도전을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는 월간 공정률과 목표 공정률이 뒷미쳐 만회 대책을 요구했고 이는 정당한 공정관리 절차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공사 두 곳 가운데 도중에 한 곳이 부도가 난 현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부진 공정 만회 대책 요구를 시공사가 부담

으로 느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핵심 자료인 감리보고서와 안전관리계획서, 구조계산서 공개 요구에 난색을 보이는 것은 의혹을 키우는 일이다. 광주시는 감리, 설계, 시공사 등 제3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거나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납득하기 힘들다. 민간 현장 사고도 아니고 공공 발주 사고인 데도 자료 공개를 미적대는 것은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는 빌미를 제공할 따름이다.

이번 사고는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총체적인 문제가 접혀된 인재다. 첨단 공법을 시공 경험이 없는 업체가 맡았고 중간에 한 곳의 부도로 공정률이 높어졌다. 그런 만큼 더 꼼꼼하게 현장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도 공정률을 높이기 위해 속도전을 벌였을 가능성은 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도 속도전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는 22일 까지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도로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방침인데 광주대표도서관 사고는 속도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교훈을 말해주고 있다.

상인 불신 '복합쇼핑몰 효과' 설득력 갖추길

광주시가 복합쇼핑몰 3각 벨트(더 현대 광주·광주신세계 확장·그랜드 스타필드) 효과를 발표했다. 3개 복합쇼핑몰이 지역경제가 미칠 파급 효과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한 것인데 상인들은 '탁상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건설 기간에만 10조 7174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만 7123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고 점포 운영이 본격화 되면 연간 매출액 발생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가 5조 7238억원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수혜 업종 분석과 함께 전 반적으로 낙수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광주신세계 상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기획적인 수치만 내세우고 있다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원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無等鼓

영웅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삼국지' 속 유비와 조조, 손권은 패권을 다뤘고 제갈량과 사마의는 전술 대전을 펼쳤다. 여포와 관우, 전위는 칼날 위에서 힘을 겨눴다. 그리고 1994년, 우리 가요계에도 술한 유행가가 솟아져 나왔다.

김건모, 신승훈, 마로니에, 전람회, 투투, 활규영, 미스터투, 박진영, 박미경, 조관우, 더클래식, 서태지와 아이들, 이름만 들어도 어깨가 들썩이는 가수들이 1994년 앞다퉈 노래를 발표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길거리에서 가요 테이프를 펴는 리어카를 볼 수 있었고 이들의 노래가 유행되자.

테이프를 펴는 리어카를 볼 수 있었고 이들의 노래가 유행되자.

영웅시대 재건

화합을 이끌었다. 김종필도 나름의 정치력으로 김영삼·김대중 정부의 탄생에 힘을 보탰다.

반면 최근 정치권에선 '영웅시대'가 저물어가는 분위기다. 여야는 대통령 후보로 밤골에 애를 먹고 있다. 과거 각 정당에 대권 주자가 10여명에 달해 이를 '잡통'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고 마땅한 대권 주자를 찾지 못해 상대 진영 인사를 영입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검찰총장이

었던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영입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호남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대권 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대형 정치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호남 정치력이 힘을 잃은 탓도 있지만 다선 의원들이 지역의 광역단체장 출마에 몰두한 탓이다. 어찌면 영웅은 태어나기도 하고, 오랜 시간 지역민과 함께 키워질 수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신인을 발굴하고 있다.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대권 주자들의